

‘보성세계차박람회’, 열선루에서 피어나는 보성차의 향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선루공원에서 펼쳐지는 차문화 축제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보성을 열선루 일원에서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 축제’와 통합 개최되는 ‘2025. 제13회 보성 세계차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3회를 맞이하는 보성세계차박람회는 보성세계차박람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상균)가 주최 주관하며 녹차 수도의 위상을 알리고, 관광과 체험이 하나가 돼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차문화 웰니스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과 보성차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활용해 전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담긴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화하여 관광객들이 차문화 속에 담긴 철학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10월 24일 열리는 보성음사무소에서 열리는 ‘보성차산업 미래 발전 티 포럼’은 국내 차전문가와 학계 인사가 모여 현재 차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열선루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보성 티 캠페인 쇼’는 차와 청년 문화가 결합해 보성차를 활용한 화려한 각테일 퍼포먼스와 시음회가 준비되어, 오감을 만족하는 새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AI와 함께하는 보성티 블렌딩 라운지, 말차격분체험, 이순신 장군차 전시 및 시음, 보성차 행운의 룰렛이벤트, 보성티 감성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차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보성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의 차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제13회 보성 세계 차 품평대회, 제11회 대한민국 티블렌딩대회, 티아트 페스티벌, 티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차 문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보성세계차박람회 서상균 추진위원장은 “보성세계차박람회는 차를 매개로 전 세대를 잇는 소통의 축제”라며 “보성의 향긋한 차향과 함께 건강하고 품격있는 힐링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보성 열선루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국가유



산야행, ▲제2회 다~청년페스티벌, ▲제13회 보성세계차박람회,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전남 우수 분재 대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 60여 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통합축제로 진행되는 보성/김은기 기자

고흥유자축제, ‘유자마을 촌캉스’ 하루 만에 모집 마감 고흥은 지금 유자빛 가득한 축제 흥행 예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1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4일간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를 앞두고,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체험형 농촌 체험 프로그램 ‘유자마을 촌캉스’가 모집 시작 단 하루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유자마을 촌캉스’는 대한민국 최대 유자 산지인 고흥 양리마을을 배경으로, 시골의 정취와 자연 속 여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이다.

운영 기간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참가자들은 유자 향 가득한 마을을 산책하며 유자 따기, 유자청 담그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한옥·정원형 숙소에 머물며,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쉽고 따뜻한 정(情)’을 만끽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집 공고 직후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실제로 참가자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되면서 고흥 유자



에 대한 높은 관심과 농촌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유자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삶의 향기를 더하는 힐링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고흥 유자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흥/백도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이다. 제도적 근거는 2024년 7월 15일 무안군의회 임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마련됐으며 공공부문이 먼저 도입해 민간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무안군, 2026년 생활임금제 도입! 삶을 바꾸는 첫걸음 공공부문부터 먼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시동

군은 당초 2025년 시행을 계획했으나 재정부담 우려로 첫 시행을 2026년으로 조정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이며 별도 지침에 따라 임

금이 지급되는 일시적 채용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난 9월 30일 열린 무안군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부군수)에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0,5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2.2% 인상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 2,204,950원이다.

김산 군수는 “생활임금제는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근로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정착시켜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계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진도군 음식점, “친절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도군은 최근 일부 음식점의 불친절 사례가 유튜브 등에 게시되며 진도에 대한 관광객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함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친절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음식점 친절 서비스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16일(목)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위생업소 영업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음식점, 친절로 다시 태어납니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친절 서비스교육 ▲음식문화 개선 및 친절 다짐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캠페인)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영업주들은 ‘친절 실천’과 ‘정결한 위생 관리’를 다짐하며, 위생업소의 품격과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장흥군, 그린환경센터와 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장흥군은 16일 그린환경센터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장에서 화재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장흥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훈련은 소각장에서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쓰레기 반입장에 화재를 가상해 실시됐다.

초동진화, 화재대피, 중요문서 반출, 응급환자 구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훈련에 나섰다. 소화기, 소화전 위치 확인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과정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훈련강령을 통해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몇 대 이상의 효과를 내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훈련하고 관심을 가져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흥군 계공



담양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 실시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6일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 병원체를 고의로 살포해 인명 피해나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로, 소량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훈련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담양경찰서, 담양소방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생물테러 대응체계 이론 교육과 함께 ▲개인 보호복(레벨 A·C) 착용 실습 ▲검체 채취 및 다중탐지카드 활용법 ▲검체 포장 및 안전 이송 등으로 진행됐다. 담양/이종욱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